

기념식 중심 행사 탈피, 개방과 참여 유도하는 문화축제 형식으로 변모

문화부, 진흥원 주도로 이루어지던 ‘문화의달’ 행사를예총, 민예총두단체가중심이되어주도한지올해로3년째된다. 정부가 주관할 때는 문화가 일반대중의 것이라는차원에서보다는고급문화위주로행사를진행해왔고, 공연도한두작품정도여서문화의달행사취지를살리지못한느낌이강했다.

3년 전 민간 주도로 바뀌면서 문화의 달 행사가 달라졌다. 오페라, 뮤지컬, 마임, 대중가요등각문화작품들을버라이어티적으로구성했고, 그해의주제를다양한형식과내용의행사로형상화함으로써모두가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양한 층의 참여가 이루어져 지향점이 서로 다른 예술인들이만나공조체제를형성할수있었던것은무엇보다큰수확이며의미라할수있다.

기념식중심의문화의달, 문화의날

문화부, 진흥원중심의문화의달 행사는 10월 20일문화의날기념식위주로진행되어왔다. 기념식은일반적으로문화예술유공자서훈, 대한민국문화예술상시상과특별공연으로구성되었으며정부의주요문화정책



1990년문화의날행사(국립극장)



1990년문화의날기념식

이이기념식을통해공표되기도했다. 1991년에는 이어령 장관의 ‘문화주의선언-문화주의의 바람개비를 이 공표되었으며 1997년에는 아예 문화비전 2000 선포식이 문화의날기념식과함께개최되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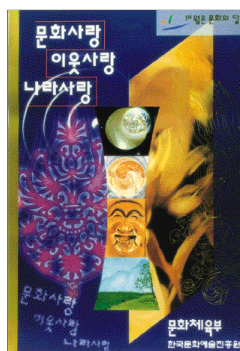
기념식 특별공연은 중견 예술인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여 여러 장르를 포괄하는 수준 높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나 기념식 위주의 행사 진행은 시민들보다는 기념식에 초청된 인사들을 우선시하는 ‘관주도’행사의한특징으로볼수도있을것이다.

1992년에는문화축제주간이만들어져기념식위주의 문화의 달행사에 변화가일어나기도 했다. 이 문화축제 주간은 5일 동안 전야제, 기념식, 춤의날, 책의날, 대전엑스포의 날, 예총의 날로 구성되었다. 이어 93년은 대전엑스포의날 대신 국악의 날이 포함되었으며, 94년에는 기업과 문화예술의 날, 국악의날, 미술의날로, 95년에는미술의날과문학의날로문화축제주간이구성되었다.

특히 1993년에는 청량리역 등 일반인의

왕래가많은곳을순회하는프로그램을도입하기도 했으며, 1995년에는 문화축제 주간을줄이고 10월한달간전국에서문화예술이벤트를벌이는 ‘10월 문화마당 95’를 기획하는등문화의달행사를시민들이더가깝게즐길수있도록하기위한노력도계속되었다.

그러나 문화의 달 행사가 민간주도로 변화되기전3년간문화의달행사는시민들을 찾아가기보다는시민들이찾아와야만볼수있는 ‘관주도’성격을그대로간직하고있었다. 1996년문화의달행사는국립극장에서



1994년 문화축제 주간 포스터

연, 국립극장 야외 광장의 설치미술 <풍경의 꿈, 1996년 움직이는 빛, 움직이는 소리>, 문예회관에서의 각종 특별 초청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문화예술을 평소



1994년 문화의날 기념식



1994년 문화의날 행사(마로니에공원)

에접하지않는시민들의관심을끌어모으기에는역부족이었다.

1997년에는 별도의 행사 없이 문화비전 2000 선포식을 겸한 문화의 날 기념식만이 국립극장에서 벌어짐으로써, 기념식을 통해 국가문화정책의 방향성이 제시되었다는 성과가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문화의 날은 정부의 전유물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대통령이 참석하여 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기도 한 1998년의 행사는 국립극장을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국립극장에서의 기념식과 특별공연〈하나되는 겨레, 희망의 소리〉 외에는 국립극장 야외무대에서 벌어진 기념음악회, 마로니에 공원에서의 사물놀이 특별공연이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전부였다.

정부 주도의 문화의 달 행사는, 이를 통해 국가의 문화정책이 제시되기도 하고 문화예술계의 공로자들이 그 공을 널리 인정받는 등 우리 문화예술을 위해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나, ‘국민으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정된 문화의 달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의 달 행사가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이양된 것은 문화의 달을 그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에다가서는 문화행사로 발돋움

2001년 ‘찾아가는 예술 함께하는 문화’를 계기로 민간 주도 문화의 달 행사를 되돌아본다.

문화의 날 행사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첫 해인 1999년에는 ‘돌아보며 내다보며’를 주제로 마련됐다. 이 행사는 기존의 기념



1995년 문화마당 행사 중 전통 혼례 축제



1995년 고원 축제 행사 중 국악한마당



1995년 고원 축제 행사 중 빅이벤트



1998년 문화의날 기념 두레패 특별공연(좌/우)



식중심행사를탈피하고개방과참여를유도하는 문화파티 형식으로 꾸며져 시민 호응도를높이는데 기여했다. 이날 기념식은 9인조 남녀 혼성중창단이 마련한 <아름다운강산>을첫무대로시작해국립국악단의 <처용무>, 허영자 시인의 축시와 이태주 행사 총감독의 ‘ 문화예술의 다짐 ’ 등으로 진행됐다.

문화훈장 서훈자는 35명으로 금관 문화훈장은 고(故)김세형 선생, 미술인 김흥수 및 고(故)이유태 화백 등에게 수여되었다. 서울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합창을 끝으로 내부 행사가 마무리되고 마로니에 공원에 서의 마당극 놀이로 이어져 다채롭게 펼쳐졌다.

같은 시간 문화의 날 부대행사로 마련된 4개의 테마파티가신당동, 홍대, 인사동, 대학로에서진행됐다.

떡볶이를 주제로 신당동에서 열린 ‘ 떡볶이 페스티벌 ’은문화의 개념을문화 생산품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에서 일상 생활의문화적행위로까지확장시키려는의도에서기획되었다. 떡볶이가갖는친근함이시민들의

참여를자연스레유도했고새로운시도에대한주목도높았다.

홍대 앞 ‘ 춤과 퍼포먼스 축제 ’ 는 여럿이 함께 춤추는 마을축제 형식으로 꾸며졌다. 가장 직접적 표현 형태인춤을매개로 문화예술인들만의잔치에서지역주민과함께하는열린축제로탈바꿈했다.

직장인대상으로이루어진인사동거리미술축제 ‘ 미스터킴을 위하여 ’ 는 문화로부터 소외된이들에게새로운형태의미술문화를 제시하고경험하게함으로써폭넓은미술의 영역을개척했다는호평을받았다.

대학로 메인 이벤트인 ‘ 돌아보며 내다보며 ’ 는 20세기 마지막 문화의 달을 맞아 한 시대의연극, 음악, 거리공연등문화적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대학로에서 우리 문화자산들을되새겨보고밀레니엄문화의미래를 조망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연극, 클래식, 현대판 풍물굿 등으로 일반인의 문화 체험폭을넓혔다는평가를받았다.

‘ 만남 의 의미를 문화와 예술을 통해 나누어 함께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기획된 2000년문화의달행사는최근남북이산가

족상봉과 인터넷 사이트 ‘아이러브 스쿨’, 해외입양아의 부모 찾기 등 행사를 재조명해 보려는 노력에서 비롯됐다. 10월 20일 열린 문화의 날 기념식은 사물놀이 한울림, 서울시뮤지컬의 공연, 이근배 시인의 축시 낭송 등으로 예년에 비해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문화훈장 서훈자는 33명으로 금관문화훈장은 비디오토크백 남준, 은관문화훈장은 권순형, 김동진 등이 수상했다.

한 장소에서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만날 수 있었던 대학로 마로니에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복고문화를 펼쳐냈다. 추억의 놀이전시회, 학교종이땡땡땡(전시)을 비롯해 해오리예술가오정미의 비빔밥 퍼포먼스가 열렸고 간단한 음식 시사회를 통해 막걸리, 술찌기, 북한음식, 어린시절 불량식품 등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통한 가장 큰 성과는 70·80년대를 회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행사가 옛 추억을 되짚어보고 현재의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거리 마임과 마당극을 펼쳐 보인 명동에서는 옛날의 소박하고 흥겨운 분위기를 부담 없이 접할 수 있었다. 명동 일대 곳곳을 이동하며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 거리 마임과 마당극은, 둥그렇게 둘러서서 기념품을 주고 받으며 연기와 대화하는 가운데 옛날의 소박하고 흥겨운 분위기를 접하게 하였다.

여유롭고 자유롭게 음악에 빠져보는 놀이 공원형 거리콘서트가 열리곤 하는 홍대앞에서는 동시다발 음악쇼가 열렸다. 특별한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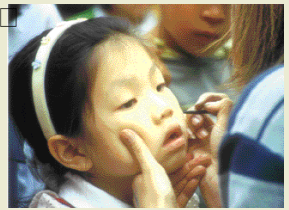
1999년 문화의 날 기념
홍대앞 축제 이벤트 중
<학춤>(위)
1999년 문화의 달,
문화의 날 주제
'돌아보며, 내다보며'(좌)

대없이 길거리 곳곳에 간단한 악기와 조명을 설치하고 음악과 주변 상황에 맞게 코디하는 풍경은 동시다발적인 작은 아트 쇼라 부를 만 했다. 홍대 앞 거리 음악쇼는 신기하고 적극적인 만남이었으며 각각의 특정 장르나 컨셉 별로 묶여 공연한 만큼 그 다양성의 폭도 넓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3번째를 맞은 민간자율 2001년 문화의 달 행사 컨셉은 ‘찾아가는 예술, 함께하는 문화’로 평소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장르의 문화예술을 직접 생활 속으로 들고 찾아 감으로써 문화를 우러러보는 것이 아닌 어깨를 맞대고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획의도에 부응하기 위해 파격적이면서 함께 즐기며 문화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공연이 많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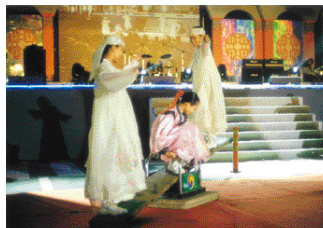
2001년 문화의날 행사는
문화파티형식으로 서울이곳저곳에서
다양하게 진행됐다.
경복궁(사진1), 양천(사진2),
대학로(사진3·4·5)에서 열린
행사와 문화특공대 게릴라
(사진6·7)
공연모습



문화의 날 기념식은 난타의 공연을 시작으로 뮤지컬그룹 ‘맥’의 축하공연, 박정희 시인의 추시낭독등으로 이루어졌다. 문화훈장 서훈자는 44명으로 금관 문화훈장은 김천홍, 장우성, 고(故)김수영, 최명희가 은관 문화훈장은 이자관등이 수상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본공연은 ‘차없는 거리 토 변신

한대학로의 특설무대에서 대형 야외 공연으로 펼쳐졌다. 과거와 현재를 대변할수있는 문화의 단편들을 모아 한자리에 펼쳐냈고, 클래식과 팝을 아우르는 공연들이 새로움과 익숙함으로 다가오는 보기도 문기회였다.

부대공연은 ‘새로운예술, 참여하는문화’를 컨셉으로 마로니에공원 전역에서진기한



2001년 문화의날주행사의공연모습들

